

15~16세기 회화에 나타난 여성의 인체미와 복식 —흑사병으로 인한 인구감소의 영향을 중심으로—

박 속 현 · 이 정 옥

경성대학교 의류학과 · 영남대학교 의류학과

Female Figure Ideal and Dress Depicted on Painting of the 15th-16th Century

—About Influence of a Decrease in Population by the Black Death—

Sook-Hyun Park · Jung Ok Lee*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Kyung Sung University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Yeung Nam University*

(1993. 12. 13 접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1) to analyze the female figures with potbelly in the nude of the 15th-16th century, 2) to find out the historic event which made these figures appeared, and 3) to clarify the influence these figures on dres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re was a sudden decrease in population by the Black Death in the Middle of the fourth century, so supplement of labor was urgent demand at that ime. Childbirth was the only way of supplement of manpower. 2) Therefore, the figure of pregnant woman was regarded as the female figure ideal. The artists depicted this figure ideal in nude. 3) This female figure ideal changed the form of dress. Pillow, pad, and special undergarments were used to make potbelly.

I. 서 론

의복은 살아있는 인체에 입혀짐으로써 비로소 완전한 형태로 성립된다. 복식조형에 있어서 다른 조형예술과 다른 점이 바로 인체와의 밀접한 연관성인 것이다. 특히 특정시대의 사회적 이상체형은 복식의 형태 변화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복식의 영향을 받아 변화되기도 한다¹⁾.

복식은 한 시대의 사회, 문화 의식을 표현하는 동시

에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특정한 사건들로 인해 변화되어진다는 것은 많은 연구 결과 밝혀진 사실이다. 인체 또한 사회의 현실을 반영하는 이미지로서 예술가들에 의해 표현되는 주제인데 각시대마다 다양하게 변화되어 온 것을 누드화를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다²⁾. 그렇다면 사회적 이상체형, 복식형태, 그리고 시대적 배경은 서로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동안 복식 연구에 있어서 인체의 형태와 연관시킨 선행연구는 류 기주, 김민자³⁾의 인체의 미의식과 복식

형태와의 관계를 밝힌 연구, 그리고 Danielson⁴⁾의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 나타난 이상체형, 복식 형태와 시대정신(Spirit of the Times)과의 관계를 고찰한 연구가 있었다. 본 연구자는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강의 를 해 오면서 체형과 누드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각 시대별로 나타난 다양한 인체의 양상을 살펴보면 중세말에 나타난 복부가 튀어나온 특이한 형태의 체형을 접하면서 누드화 사상 유례없는 이런 비정상적인 형태가 왜 출현하게 되었는지에 관한 의문을 제기 하면서 본 연구에 임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15~16세기 회화에 나타난 복부가 강조된 여성 인체를 그 당시 누드화를 통해 관찰해보고 어떤 시대적 배경에 의해 생겨 났으며 복식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본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복부가 강조된 여성체형이 특정한 시대적 상황의 영향에 의해 나타났는지 살펴본다.

연구문제 2: 복부가 강조된 여성체형이 임신부 체형인지 살펴본다.

연구문제 3: 복부가 강조된 여성체형이 복식의 형태에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본다.

연구방법은 문헌 자료와 그림 및 회화 등을 토대로 연구 했으며 이론적 배경으로는 복식 형태, 사회적 이상체형, 그리고 시대적 배경에 관해 서로의 연관성을 간략히 고찰했다. 본론에서는 누드작품을 분석하여 시대적 배경과의 연관성을 밝히고 복식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시기적 범위인 15~16세기는 중세말기와 르네상스초기가 같이 포함되는 과도기적 시기로서 본 논문에 사용된 회화 역시 중세말기로 분류되는 작품들과 르네상스초기로 분류되는 작품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복부강조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고딕시대 여성체형으로 분류^{5,6)}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시기를 중세말이라 규정함이 바람직하리라 생각된다.

II. 본 론

1. 복식과 인체 그리고 시대적 배경과의 연관성

복식의 형태에 관해 특수한 점은 그것이 인체와 긴밀

하게 상관해서 성립한다는 것이다. 한 시대의 사회적 이상체형은 언제나 의복에 반영되며 이러한 이상형은 그 시대 모든 복식의 토대를 형성한다. 의복이란 이른바 일상생활의 실천에 있어서 시대의 육체적 아름다움에 대한 이상이 전위된 형태이다⁷⁾. 이상체형이란 사람들이 거의 도달할 수 없는 목표로서만 존재한다⁸⁾. 다시말해서 그 시대가 원하는 완벽한 신체 비례를 가진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말이다. 따라서 사람들을 사회적 이상체형에 접근하기위해 복식을 이용하여 허리, 엉덩이, 가슴 등을 죄거나, 구속하거나, 강조하는 방법으로 신체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반대로 어떤 특정한 형태의 복식이 유행하면 그 형태와 비슷하게 사회적 이상체형이 변화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사회적 이상체형과 복식의 형태는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변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체란 동서양을 막론하고 미술의 한 주제로서 예로부터 지금까지 미술가들에 의해 끊임없이 표현되어지고 있다. 그런데 인체는 동식물이나 자연 풍경과는 달라서 정확히 베껴내고 예술이 되는 그런 주제가 아니다. 나체의 집단을 그 모습 그대로 화폭에 옮긴다면 누드화들을 대하듯 아름답게 느낄 수는 없을 것이다. 미술가들은 인체를 다른 자연물들처럼 똑같이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원하는 완벽한 형태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⁹⁾. 완벽하다는 기준은 일반적으로 그 시대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체에 대한 미의식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칸딘스키(Kandisky)¹⁰⁾는 그의 저서에서 아무리 뛰어난 독창력을 가진 작가라도 그 시대가 부여하는 자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듯이 예술가가 표현하는 모든 매체는 그 시대의 역사와 사회의 현실을 반영하는 이미지로 제시되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인체라는 단일한 주제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되어 온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Danielson¹¹⁾도 그의 연구 결과 특정 시대의 시대 정신은 당시의 이상체형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혔다.

복식은 한 시대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종교, 철학 등 여러가지 사회 사상의 영향으로 형성된 생활 양식이나 문화 그리고 전쟁이나 자연 재해 등의 특정한 현상과도 깊은 관계를 맺으며 변화 발전한다^{12,13)}.

이상의 고찰에서 복식, 인체, 시대적 배경은 서로 복합적으로 관계하며 변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시대적 배경

본 연구에 사용된 작품들이 나타나기 전세기인 14세기부터 유럽의 사회적 상황을 본 연구와 어느정도 관련이 있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4세기 유럽의 역사는 아마도 경제가 팽창을 그치면 위축되기 시작한다는 이론으로 잘 설명될 수 있는 시기이다. 중세사는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1000년경에 시작되어 약 삼백년동안 줄곧 가속화되어 온 전반적인 팽창의 기록이다. 이 시기 동안에 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교역이 팽창하였으며 도시가 새로이 세워졌고 광대한 토지가 개간되어 경작지로 바뀌었다¹⁴⁾. 특히 인구가 12~13세기에 걸쳐 급격히 증가하였다. 더 이상 경작할 땅이 없어진 농촌의 인구가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이동하였으나 도시 역시 거의 포화의 상태에 도달하여 많은 실업자가 생겼다. 과도한 팽창과 포화라는 이 기본적인 문제에 더하여 중세의 위기를 가져온 잇단 재해가 닥쳐왔다¹⁵⁾.

첫째는 기후의 변덕으로 인한 흉작이었다. 연대기 작가들이 창세기 제7장의 대홍수에 비견했을만큼 커다란 홍수가 발생하여 유럽전역이 큰 손실을 입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 시달렸다. 게다가 병하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14세기초에는 기후조건이 장기적 변화가 시작되었다. 겨울은 더 춥고 습해졌다. 이로 인해 수확은 더 줄어들었다. 이러한 기후의 변덕으로 인한 흉작으로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으며 심지어 사람을 잡아먹었다는 기록까지도 있을 정도였다¹⁶⁾.

또 하나의 재난은 계급과 계급, 가문과 가문, 국가와 국가사이의 끊임없는 싸움과 전쟁이었다. 오랜기간 싸움과 휴전을 되풀이해 온 영국과 프랑스의 백년전쟁으로부터 몽따규(the Montagues)와 카플렛가(the Capulets)사이의 싸움에 이르는 역사상 가장 유명한 몇몇이 바로 이 시대에 속해있다¹⁷⁾. 14세기는 10세기 이래의 어느 세기보다 전쟁에 시달린 세기였으며 수많은 인명이 전쟁터에서 사라져 간 시기였다.

이런 자연재해 및 전쟁은 어느정도 극복할 여지가 있었지만 14세기 중반에 닥쳐 왔던 흑사병이야말로 중세의 위기를 야기한 궁극적 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윌리엄 맥닐(William McNeil)¹⁸⁾은 중세의 지속적인 인구증가의 한 요인으로 서기 900년경 유럽세계가 성

공적으로 끝마친 전염병에 대한 적응력을 들었다. 기독교 세계의 사료에 나오는 마지막 페스트의 유행은 8세기 중반경이었다. 그 이후 1340년대까지는 전혀 언급이 없다가 1347년 이후 페스트가 유럽에 자리를 잡고 만성화되었다고 한다¹⁹⁾. 그렇다면 이 페스트균이 어떻게 다시 유럽에 전파되었을까? 가장 가능성 높은 가설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페스트균은 1331년 중국에 들어왔다. 그 후 16년동안 이 전염병은 아시아 대륙의 대상 교역로를 거쳐 1347년 크림리아에 도달했고 거기서부터 페스트균은 배에 실려 여러곳의 항구에 옮겨졌고 거기서 다시 내륙지방으로 전파되어 유럽과 중동의 거의 모든 지역에 침투된 것으로 추정한다²⁰⁾.

유럽에 페스트가 처음으로 발생한 시기는 1346년 크림리아 반도의 교역의 중심지였던 카파(Caffa)시를 공격한 몽고제국의 한 군대에서 발생하여 전염되기 시작했다. 1347년 이탈리아 전역, 1348년 프랑스 그리고 1349년 영국 1350년에는 아이슬란드에서 러시아에 이르는 북유럽 전역이 페스트의 공격을 받게 되었다²¹⁾.

페스트는 크게 2종류로 분류하는데 쥐로부터 감염되는 선페스트와 페스트에 감염된 환자가 기침을 할 때 균이 포함된 작은 점액의 비말이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서 감염되는 폐페스트가 있는데 전자는 치사율이 약 30~90% 정도이나 후자는 치사율이 거의 100%에 이르는 아주 치명적인 것이다. 14세기의 높은 치사율은 바로 이 폐페스트가 만연했음을 가리키고 있다²²⁾. 높은 치사율을 기록했던 또 다른 이유는 그 당시 사람들의 건강상태였다. 흉년으로 인한 오랜 기간의 굶주림으로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들도 많았고 어떤 저항력이나 면역력도 가지지 못할만큼 매우 허약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흑사병의 전염속도도 매우 빨랐고 치사율도 더욱 높아졌다. 이렇게 흑사병의 유행으로 사람들이 죽어가자 사람들은 광기와 미신에 사로 잡히게 되었다. 하늘이 내리는 벌이라고 믿으며 기도하며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 악마가 공기를 더럽혔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악초를 태우거나 나무액을 구해 마시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물에 독을 탔기 때문이라는 소문 때문에 수없이 죽어간 유대인들, 신이 노한 탓이라며 신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 알몸으로 서로에게 채찍질해 가며 회개하던 사이비 종교 집단 등²³⁾ 중세 유럽의 생활질서체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그리고 흑사병이

한차례 휩쓸고간 후 유럽의 도시와 농촌은 텅 비어버렸다.

전체적으로 1346~1350년까지 페스트로 인한 사망율이 전 인구의 약 1/3정도였다고 추정하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 약 20~50%의 인구감소율을 보였다고 한다²⁴⁾. 이후에도 여러세기동안 간헐적으로 유럽에 출현하였고 특히 최초 발생이후 50년 동안은 여러번 대규모로 발생하였다. 1665년 런던에서의 대유행을 마지막으로 유럽에서 흑사병이 사라졌다²⁵⁾. 인구감소는 15세기 초반에 중단되었고 15세기 후반부터는 인구가 다시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했다²⁶⁾.

3. 15~16세기 누드화에 나타난 여성의 인체

누드화는 B.C 5세기경 그리스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예술형태이다. 휴머니즘이란 사교의 구조속에서 그리스인들은 조화와 비례의 원칙, 통일성과 균제성의 미적 규범에 의한 이상미를 인체에서 실현하였다²⁷⁾. 그리스인들의 사고중에서도 우리에게 친숙한 “정신과 육체가 하나”라는 이 추상적인 관념을 감각적이고 구체적인 인간의 형태로 그들 나름대로 창조해 냈었다. 그리고 그들은 누드를 아름답게 생각했었다.

그러나 중세에는 기독교의 영향으로 영혼으로서의 인간이 아닌 육체로서의 인간은 부정되었기 때문에 누드가 서구 예술에서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 글레르보 수도원의 베르나르²⁸⁾는 육체는 송충이나 구더기를 위한 먹이에 불과하다고 노래하며 금욕을 강조했듯이 그 당시 육체는 아주 천하고 악마적인 요소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중세말기 이전에 나타난 소수의 작품들속에서의 육체는 위축되어 움추린 형태로 표현되었다.

본격적으로 누드화가 등장하기 시작한 시기가 바로 중세말과 르네상스 초기의 과도기적 시점에 와서 부터이다. 기독교 도상학의 어떤 주제에는 별거벗은 인물(아담과 이브)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인체에는 기억할 만한 형태가 주어졌고 마침내 고딕예술가들이 새로운 인체의 형태를 발전시켰다²⁹⁾. 이것은 일반적으로 고딕시대 여성체형의 이상형이라 알려져 있으며 큰 머리, 긴 몸통, 좁은 어깨, 아주 조그만 유방, 높은 허리, 둥글고 볼록한 배, 넓은 엉덩이, 그리고 가느다란 팔다리 들로 특징지어진다. 한 작품속에 이 모든 특징이 다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종합적으로 위에 언급한 형태들이 대부분의 작품에 많이 나타난다. 이

런 인체형태의 출현에 관해 케네드 클라크(Kenneth Clark)는

첫째, 시대의 이상에 합당한 인체 즉 당시 사람들이 보고싶어 했던 그런 형상을 창안해낸 것이 아닌가?³⁰⁾

둘째, 육체와 정신의 불가사의한 상호작용으로 이 복부의 곡선은 인체가 후기 고딕건축의 첨두아치의 리듬을 성취하려는 수단으로 배의 곡선을 이용한 것이 아닌가?³¹⁾

셋째, 복부의 곡선은 중력의 작용으로 몸속의 숨겨진 기관들에 의해 배가 늘어나 쳐져있는 것이 아닌가?³²⁾라고 추정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자는 가장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개념으로 이들 인체들에 접근해 보았다. 배가 부른 여자, 보통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임신한 여성이다. 따라서 임신부 체형일 것이라는 관점에서 이들 인체를 관찰해 보고자 한다. 먼저 임신중의 신체적 변화를 알아보면 첫째, 가슴이 부풀어 오르면서 약간 아래로 처진다³³⁾. 둘째, 임신중기가 지나면서 배꼽아래부터 성기가 있는 곳까지 흑갈색의 임신선이 생긴다³⁴⁾. 셋째, 복부가 튀어나오는데 임신초기에는 아랫배만 튀어나오지만 중기, 말기로 가면서 골반쪽의 곡선이 가슴쪽으로 올라온다. 측면을 관찰해보면 초기에는 허리선 아래쪽 배만 튀어나오고, 중, 말기로 갈수록 허리선 위쪽 즉 가슴 바로 아래부분까지 배가 불러지면서 아랫배는 약간 밑으로 처지게 된다³⁵⁾.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고딕 여성체형의 이상형이 나타난 작품들을 살펴보자. 연도가 확인되는 최초의 작품은 1410년경 드 랭부르 형제가 제작한 에텐동산에서의 원죄를 그린 삽화가 있다(Fig. 1).

이브의 몸은 길다란 몸통, 높은 허리, 볼록한 아랫배, 가느다란 팔다리 등의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성서속에서의 이브도 그렇거니와 보통 젊은 여성의 체형을 해부학적으로 살펴본다면 드 랭부르의 작품속의 인체와는 너무나 다르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러한 인체의 형태가 다른 작품들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

Fig. 2, 한스 멤링크의<이브> 그리고 Fig. 3, 작가 미상의 누드화는 고딕여성체형의 일반적 특징들을 가장 잘 나타낸 작품들이다. 좁은 어깨, 아주 작은 가슴, 큰 머리, 볼록한 배, 가느다란 팔다리, 긴 상체에 짧은 하체 등의 특징이 보드 표현되어 있다. 이 작품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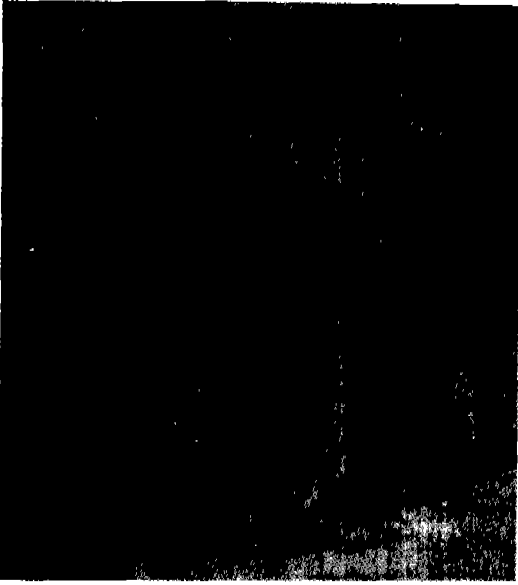


Fig. 1. 드 랑부르, <인간의 타락>, 1410년경,
케네스 블락, 누드의 미술사, 열화당,
1988, p. 397



Fig. 3. 작가 미상, 15세기,
파울 프리샤우어, 세계의 풍속사 下, 1991, p.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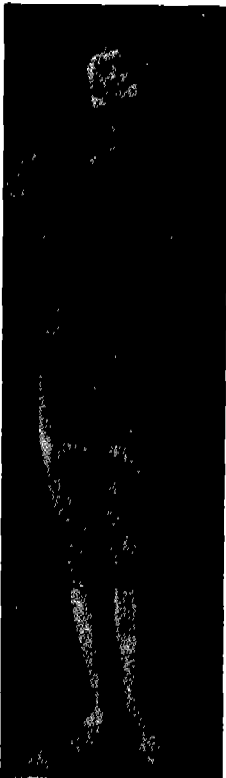


Fig. 2. 한스 멤링크, <이브>, 15세기,
월드아트콜렉션; 르네상스 II,
삼성출판사, 1990, p. 48

서는 임신부 체형이라 볼 수 있는 부분은 볼록한 복부 뿐이다.

Fig. 4, <벌거벗은 부인>과 Fig. 5, <여인들의 욕실>은 인체를 해부학적으로 그리고 고전적 비례원칙에 입각해서 아주 많은 연구를 했던 알브레히트 뒤러의 작품들이다. Fig. 2, 한스 멤링크의 <이브>와 작가 미상의 Fig. 3과 비교해서 전체적인 인체표현이 보통여성들의 체형에 더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2, 한스 멤링크의 <이브>와 작가미상의 Fig. 3은 몸전체가 흐르는 듯이 유연한 선으로 이루어졌는데 비해 Fig. 4, <벌거벗은 부인>과 Fig. 5의 <여인들의 욕실>에서는 우리몸의 근육질 상태를 더 정확히 표현했다. 가슴도 좀 더 크게 표현되었고 상체와 하체의 비율도 일반사



Fig. 4. 알브레히트 뒤러, <벌거벗은 부인>, 1493년, 케네스 클락, 누드의 미술사, 열화당, 1988, p. 400



Fig. 5. 알브레히트 뒤러, <여인들의 욕실>, 1496년, 케네스 클락, 누드의 미술사, 열화당, 1988, p. 400

람의 그것과 비슷하다. Fig. 2, <이브>와 Fig. 3을 그린 화가들이 보다 고딕여체의 이상형에 근접해서 인체를 표현했다면 뒤러는 일반인의 체형에 가깝게 해부학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했는데 그의 작품에서도 복부만은 튀어나오게 그렸다. Fig. 4, <벌거벗은 부인>에서는 허리선 아래 부분만 약간 튀어나오게 표현했지만 Fig. 5, <여인들이 욕실>에서는 오른쪽에 서있는 여인의 복부는 허리선 위 즉 가슴 약간 아래부분부터 시작해서 Fig. 4, <벌거벗은 부인>보다는 더 불룩하게 표현했다. 여기서 뒤러는 임신중 가슴의 형태변화 그리고 초기에서 말기로 갈수록 복부의 크기변화에 관한 지식을 갖고 작품에 임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Fig. 6, 반 데르 구스의 <아담과 이브>와 Fig. 7, 얀 반 아이크의 <이브>는 임신부의 신체적 특징을 사실적으로 잘 묘사한 작품들이다. 가슴의 모양과 크기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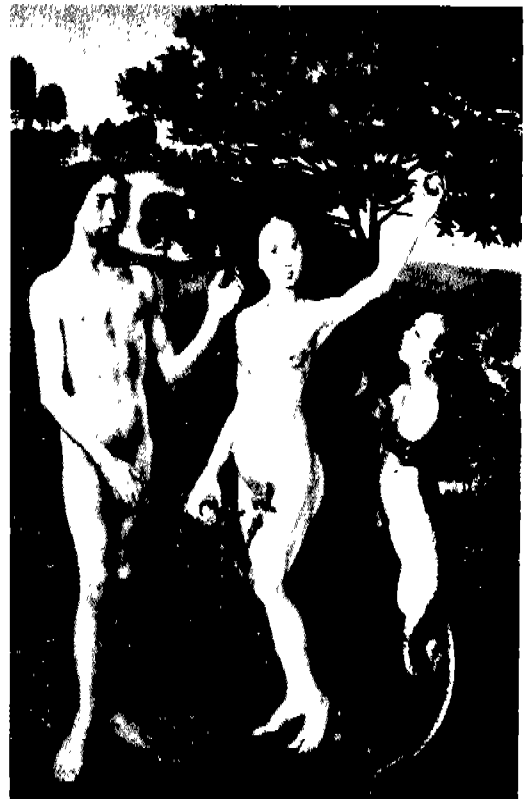


Fig. 6. 반 데르 구스, <아담과 이브>, 15세기, 월드아트콜렉션; 르네상스 II, 삼성출판사, 1990, p. 51



Fig. 7. 안 반 아이크, <이브: 겐트 제단화의 부분>, 15세기, 케네스 클락, 누드의 미술사, 열화당, 1988, p. 398

Fig. 2, <이브>와 Fig. 3에서 보여지는 사춘기 소녀의 가슴같이 조그만 형태가 아닌 좀 더 부풀어 오르고 바스트 포인트가 약간 아래로 쳐져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슴이 부풀어 커진듯 하다는 연구자의 견해는 그 당시의 다수의 작품들과 아주 작은 가슴을 선호했던 그 당시 여성인체에 대한 미의식에 근거를 두고 말한 것이다. 물론 큰 유방을 선호했던 다른 시대와 비교한다면 결코 코다고는 말할 수 없다. 복부의 형태도 임신중기 이후의 형태로 가슴아래부터 시작하여 부풀어 있고 아랫배가 쳐져있다. 무엇보다도 확실히 임신부라는 증거를 제시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배꼽아래 보이는 흑갈색의 선이다.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는 모든 누드화들의 배를 살펴보면 고딕시대 몇 작품을 제외하고 어느 시대 누드화에도 나타나 있지 않는 선이다. (배꼽위쪽으로는 선이 나타나는 작품은 자주 보이는데 이는 양쪽 갈비뼈때문에 중앙에 골이 생기는 것을 표

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fig. 3을 보면 여기서도 희미하게 아랫배에 선이 그려진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자는 이 선들은 분명히 임신중 나타나는 흑갈색의 임신선을 표시한 것이라 생각한다. 이 작품들에서 클라크(Clark)³⁶⁾는 가슴과 배의 처진 상태를 중력때문이라는 견해를 갖고 있는데 본 연구자의 의견은 다르다. 중력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항상 존재해 온 현상이다. 왜 하필 고딕시대에만 중력의 작용을 받아 가슴과 복부가 처지겠는가? 르네상스, 로코코, 바로크, 근세에 이르기까지 풍만한 육체를 가진 수많은 누드화의 주인공들은 왜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았겠는가? 따라서 본 연구자는 반 데르 구스와 안 반 아이크가 임신한 여성의 체형적 특징을 잘 파악하고 작품에 표현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 사용된 그림들 외에도 이런 체형의 누드화들이 많이 존재하는데 이들을 분류해보면 Fig. 2, Fig. 3과 같이 해부학적으로 일반 여성체형과는 많은 차이가 있고 그시대 이상형에 맞게 표현하면서 복부강조만으로 임신의 징후를 나타낸 작품들이 가장 많다. 그리고 뒤러의 작품처럼 고딕여성 체형보다는 일반여성체형에 많이 접근해 있으며 가슴과 복부형태변화로 임신의 징후를 나타낸 작품들도 있었고 또한 Fig. 6, <아담과 이브>와 같이 가슴과 복부의 형태변화와 임신선의 표시 등 임신중에 나타나는 신체변화를 해부학적으로 잘 묘사한 작품들로 크게 분류할 수 있었다.

4. 흑사병으로 인한 인구격감이 여성인체미에 미친 영향

본장에서는 시대적 배경에서 밝혔던 인구감소와 복부가 강조된 여성체형과의 연관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시대적 배경에서 밝혔던 기후의 변덕으로 인한 흉작과 전쟁들도 인구감소에 영향을 미쳤으나 흑사병으로 인한 인구감소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만큼 적은 비율이므로 본 고에서는 흑사병을 주된 요인으로 결정하고자 한다. 맥닐³⁷⁾도 중세 후반부터 근세초기에 이르기까지 유럽 여러지역의 인구동태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은 흑사병이었다고 밝혔다. 흑사병이 유럽을 휩쓴 처음 몇해동안은 인구감소로 인한 영향을 크게 받지 못했다. 그 당시에는 쓸 수 있는 자원에 비해 인구가 많았으므로 죽은 사람들의 빈자리를 메우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 그러나 14세기 후반으로 가면서 거듭 페스트

가 유행하면서 사정은 변했다. 농업과 수공업 중심이었던 중세유럽의 경제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자본 즉 노동력의 심각한 부족현상을 가져왔다.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단순노동에 요구되는 인력조차도 부족하게 되었다³⁸⁾.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생식능력이 있는 남녀의 결합에 의한 자식의 생산이었다. 흑사병의 충격가운데 가장 심했던 상태를 벗어나자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을 재건설하고자 하였고 이에 따라 출생률도 다소 상승하였다³⁹⁾. 출생률은 인구변화의 방향과 정도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모든 사회는 기본적으로 출생에 의한 사회 구성원의 보충을 통해서만 형성된다. 그러므로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나 출생은 필수적인 요구지만 그 요구되는 정도는 사회적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 변한다⁴⁰⁾는 인구학의 이론을 흑사병 출현이전과 이후의 시기를 비교해 봄으로써 알아보자.

인구의 포화상태에 있었던 13세기에서 흑사병의 공격을 받기까지의 출생률은 겨우 사회의 규모를 유지하거나 심지어는 그것조차 제대로 해내지 못할 정도로 낮았다⁴¹⁾. 또한 이 시기에는 흉작으로 인해 유럽전체가 기아에 허덕이고 있었으니 자식의 생산을 차라리 저주받을 일이었다. 중세에는 어린이에게는 관심도 없었으며 유아사망률이 높았던 그 시기의 어린이는 불안의 대상이었다. 사실 중세서양에 어린이들이 있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정도로 대부분의 예술작품속에서 어린이들을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러다가 어린이에 대한 새로운 화상학적 주제들이 보편화된 것은 중세말이 지나서였다⁴²⁾고 하는데 이 시기가 바로 본 논문의 연구범위와 비슷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흑사병의 충격이 가시고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 많은 여성들의 임신이 권장되었을 그 시기, 역사상 유례없이 부족했던 인간이라는 자본을 생산하는 데 전념했어야 할 시기, 따라서 자식은 더 이상 저주의 대상이거나 불안의 대상이 아닌 가장 값진 자본으로 대우받을 수 있는 시기가 왔던 것이다. 그토록 귀한 자본을 잉태한 여성의 모습은 그당시 사람들에게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답게 보였을까는 미루어 짐작이 가는 일이다. 그 당시와 흡사한 상황기록을 살펴봄으로써 얼마나 절실하게 출생률을 높이려고 노력했는가를 알아볼 수 있다. 17C 전반기 독일에서는 전염병과 장기간의 전쟁으로 인해 국토가 황폐해지고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부족한 인구를 빠른 시간내에 회복시키기 위해 정부에서는 일부이치제를 철저히 시행토록 했다. 그리고 정부가 나서서 모든 생식능력이 있는 남자는 아이를 생산하는 일에 전력을 기울이며 무조건 이 의무를 이행할 것을 공개적으로 엄명했다. 이런 사회적 상황하에서는 임신한 여자나 젖을 빨고 있는 갓난아이를 품에 안고 있는 여자만이 진정한 여자로 보였고 태어난 아이가 아직 젖을 떼기도 전에 또 애를 배는 것이 도덕적이고 훌륭한 일로 칭송되었다⁴³⁾. 이런 17세기 독일상황은 15세기 유럽상황과 흡사했을 것이라 생각되며 이 상황을 그대로 15세기에 적용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중세 농민들 사이에는 시험혼이라는 관습이 행해졌는데 이것도 출생률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시험혼이란 결혼전에 서로의 육체적 상태를 분명히 알아보기 위해 하루밤을 같이 지내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하여 '남성쪽에서는 성적인 만족을 주는 여자보다는 출산을 기뻐하는 처녀, 애기를 잘 낳을 수 있는 처녀 인지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를 치렀다고 한다⁴⁴⁾. 또 다른 기록에서는

유럽의 모든 나라들마다 다른 남자의 신부를 상대로 섹스(sex)와 아이만들기가 행해졌다. 그것은 처녀가 신방에 들기전에 해야했던 일종의 의식이었다. 섹스(sex)값이 어느정도 인가는 그 처녀와 관계함으로써 자식을 만들어 내는 남자의 능력에 따라 결정되었다.⁴⁵⁾

고 하니 이당시 자식을 생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던가를 짐작하게 해 준다.

임산부 칭송에 관한 또 다른 기록이 있는데, 이는 좀 더 다른 각도에서 바라다 보았다. 그 당시는 성숙이 칭송되던 시기, 꽃을 피우려고 하는 아가씨보다 성숙한 어머니의 아름다움을 훨씬 더 유혹적으로 본 시기였다고 한다. 당시 사람들은 다른 시대와는 달리 임신한 여성을 통해서 모성의 신성함을 칭송했다는 의미 외에도 임신상태를 관능적으로 아름답다고 보았다. 화가들에 의해 임산부들이 작품속에 자주 등장하게 되며 얼굴과 감상선이 부여있는 임산부의 외적징후까지도 잘 표현된 작품들도 있었다. 또한 나체의 여성을 그럴 때도 마치 임신한 것처럼 배를 크게 했던 것도 미학적으로 아름답게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한다⁴⁶⁾. 이로써 미학적으로 관능적으로 아름답게 여겨지게 된 동기

가 바로 그 시대가 절실히 필요로 했던 노동력을 생산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여성의 임신이었기 때문에 임신한 상태의 여성은 아름답게 보일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밝힐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흑사병으로 인해 유럽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노동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진 사회적 상황에서 중요한 자본인 인간을 잉태한 여성의 모습은 그 당시 모든 여성이 도달하고 싶었던 그 시대 최고의 이상형이었음이 분명하다고 생각되며 화가들은 그 시대가 원하는 여성의 모습을 그들의 작품속에서 표현했던 것 같다.

5. 복부가 강조된 여성체형이 복식형태에 미친 영향

15~16세기 여성복식의 전체적인 실루엣은 웨이스트를 높게, 가슴은 작아보이도록 그리고 배가 볼록하게 보이도록 하여 구불구불하게 흐르는 듯한 선이 연출되었다. 복부가 강조된 형태에 관한 설명을 보면 작은 가슴이 유행했던 시기였으므로 가슴을 작게 보이기 위해 가슴을 가슴을 안으로 집어넣으니 자연히 배가 튀어나와 이런 실루엣이 형성되었다⁴⁷⁾. 또는 꼭죄는 허리와 허리를 가늘어 보이도록 하려는 효과를 주기위해 배부위를 강조했다고 밝히고 있다⁴⁸⁾. 그러나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 밝힌 사실을 토대로 왜 이런 복식 형태가 출현하게 되었는지를 이제 명확히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임신부처럼 보이고 싶어서 배를 강조했던 것이다. Roach and Eicher⁴⁹⁾는 가장 아름답다고 간주되는 것에 대한 합의점에 가까와 질 때 개인의 아름다움에 대한 문화적 이상이 성립하는데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취할 수 없는 목표로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개인은 이상적 형태를 취하기 위해 의복을 착용하도록 자극을 받는다고 했다. 그 당시 임신부 체형에 도달하고 싶은 여성들의 욕망은 복식을 통해 실현될 수 있었다. 베게나 패드같은 것을 이용하여 배를 부풀리거나⁵⁰⁻⁵²⁾ 혹은 상품화된 속옷⁵³⁾ (임신 3, 4개월의 배가 제조되어 팔렸다고 함)을 착용하여 겉옷의 형태변화를 시킨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8. 얀 반 아이크의 <조반니 아르노피니의 결혼식>에 나타난 신부의 겉옷은 신분이 높은 계층의 여성들이 즐겨 입었던 우뿔량드^{54,55)}인데 이 겉옷은 14세기 말에 나타나서 15세기를 특징짓는 남녀공용의 의상으



Fig. 8. 얀 반 아이크, <조반니 아르노피니의 결혼식>, 1434년, James Laver, *Costume & Fashion*, Thames and Hudson, 1988, p. 65.

로 꼬뜨나 꼬따르디 위에 입혀졌다. 풍성한 품에 매우 넓고 긴 소매와 여러가지 모양의 소매단 그리고 하이 칼라가 특징이었으나 15세기 초 부터는 상체와 소매가 타이트해지면서 칼라도 작고 둥근칼라, 혹은 칼라가 없는 네크라인으로 바뀌었다. 그림에서는 둥근 네크라인에 독특한 모양의 소매, 하이 웨이스트, 넉넉한 품, 긴 스커트자락, 그리고 귀족신분에 맞게 모피로 안을 댄 고급의상임을 잘 나타내고 있다. 우뿔량드는 귀족 계층에서 복부가 강조된 형태의 실루엣 구성을 위해 많이 착용되어진 옷이다. 임신 말기에 가까워진 듯한 볼록한 복부가 정말로 임신한 상태가 아닌가하고 의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작품은 결혼식 장면을 묘사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성스러운 결혼식날 만삭이 된 모습으로 예식을 치른다는 것은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할 수 없으므로 분명히 속옷을 이용하여 복부를 강조했으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덧붙힌다면 신부에게는 일생중 가장 아름답게 보여지고 싶은 결혼식날이었



Fig. 9. <사냥나온 기사 일행들>, 15세기
앤 프래맨틀, 라이프 인간 세계사: 신앙시대,
p. 111

기 때문에 그 당시 유행하던 복부강조의 형태를 더욱 과장했으리라 생각한다.

Fig. 9, <사냥나온 기사 일행들>과 Fig. 10, <정원에

서의 댄스>에서는 귀족계층 여성이 꼬뜨만 착용했음시
도 여전히 속옷이나 패드를 사용하여 복부를 강조했다
는 것을 보여준다. 꼬뜨^{56,57}는 남녀가 함께 입은 튜너
형의 원피스로 길이는 주로 발등을 덮을 정도의 길이
가 많았으며 여성의 것은 좀 더 긴것도 있었다. 소매
의 모양은 여러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상체는 비교적
여유있게 맞고 스코트부분은 넓어져 주름이 잡히도록
되어 있으며 벨트를 이용해 앞자락을 끌어올려 블라우
징(blousing) 시키기도 했다.

Fig. 11은 15세기 이태리와 북유럽의 남녀 복식 비
교로서 머리 형태, 복식형태, 그리고 신발 모양 등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복식을 보면 두 여
성 모두 겹옷은 우뵈랑드를 입고 속에는 꼬뜨를 입고
있다. 우뵈랑드의 네크라인과 소매모양은 두 지역이
다르게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다. 스커트자락도 이태
리 여성의 복식에서는 앞이 올라가 있고 북유럽 복식
에서는 옆자락이 올라가 있다. 그러나 하이 웨이스트
에 볼록한 복부는 두 작품 모두에 나타난다. 이것은
그 당시 유럽 전역의 상황이 비슷했으며 임신부 체형
이 선호되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해 준다.

Fig. 12, 13은 중산계급의 복식으로 머리장식이나 복
식의 디테일이나 장신구가 귀족보다는 많이 단순함을
보이고 있으나 복부는 여전히 볼록하게 보여진다.
Fig. 12의 여성은 꼬뜨를 착용하고 있으며 Fig. 13에서
는 왼쪽에서 두번째 여인은 꼬뜨를 나머지는 모두



Fig. 10. 정원에서의 댄스, 15세기 말
History of Costume, Blanche Payne, Harper & Row, 1965, p. 219



Fig. 11. 1470년 이태리 복식, 1485년 북유럽 복식,
James Laver, *Costume & Fashion*,
Thames and Hudson, 1988, p. 67



Fig. 12. 중산계급의 복식, 15세기
패션의 역사 I, 라사라, 1992, p. 147



Fig. 13. 중산층의 복장, 이정옥의, 서양복식사,
형설출판사, 1987, p. 141

hanging sleeve가 달린 꼬따르디를 착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14. <농민들의 복장>에서 여인들은 꼬뜨만 입거나 꼬뜨위에 쉬르꼬를 입고 있다. 쉬르꼬^{58,59}는 십자군 원정시 병사들이 갑옷위에 입기 시작한 옷이었는데 차차 일반에게도 유행되었다. 처음에는 두개의 직사각형 천을 양쪽 어깨에서 꿰매어 걸친 것이었으나 후에는 장식적인 걸옷으로 꼬뜨나 꼬따르디 위에 입혀졌기 때문에 옷감도 아름답고 색상도 속에 입는 옷과 조화를 고려하여 선택했다. 위의 작품에서의 쉬르꼬는



Fig. 14. 농민들의 복장, 15세기
정홍숙, 복식 문화사, 교문사, 1987, p. 1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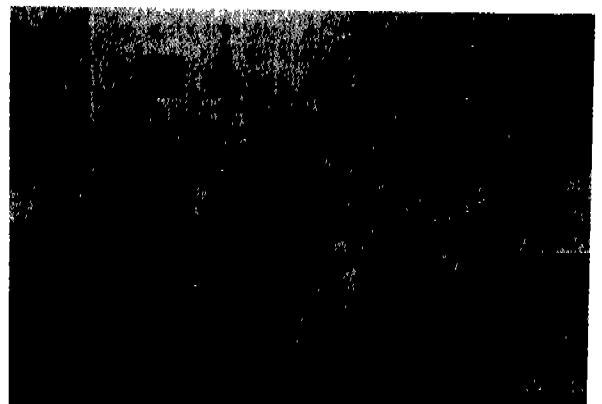


Fig. 15. 가사일을 하고 있는 마리아와 엘리자베스,
15세기초
Gothic and Renaissance Art in Nuremberg 1300
-1550. The Metropolitan Art of Museum, N.Y.
and Prestel Verlag, Munich, 1986, p. 142

신분이 낮은 농민들의 복식이므로 매우 단순함을 알 수 있다. Fig. 15, <가시일을 하고 있는 마리아와 엘리자베스>에서의 두 여성은 성서에 나오는 서민층의 인물로서 단순한 꼬뜨위에 맨틀을 걸치고 있다. 위의 두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하급계층 여성들은 머리장식을 거의 하지 않았고 의복도 무늬나 장식이 전혀 없는 소박하고 단순한 것을 착용했으나 복부를 볼록하게 강조한 것은 중, 상류계층과 마찬가지로였다. Fig. 15의 마리아 머리위의 왕관은 성녀를 표시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앞에서 본 귀족계층 그리고 중산층 및 서민들 사이에 복부의 크기가 다르게 보여진다는 사실이다. 신분이 낮아질수록 배의 크기가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당시 옷의 사회적 의미는 무엇보다도 컸다. 영주 귀족들은 다른 계급들을 낮은 지위에 구속시켜 두기위해 계급에 따라 입어야 할 복식을 법으로 규정했다. 따라서 사람들의 지위는 복식만으로도 명백히 구별될 수 있었다. 자신의 신분에 맞지 않는 다른 신분들의 옷을 입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으로 취급될 정도였다⁶⁰). 그리고 귀족들은 그 당시 선호하는 복식이나 장신구를 다른 계급들이 감히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과장을 하여 부와 권력을 과시하는 도구로 복식을 이용했다. 이러한 사실은 중세사회에서만 행해진 것이 아니라 신분의 구별이 명확했던 모든 시대에 적용되어진 사실이다. 예를 들면 풍만한 가슴을 선호했던 시대에는 신분이 고귀할수록 더욱 크게 보이도록 형태변형을, 가느다란 허리와 큰 엉덩이를 선호하던 시대의 귀족들은 허리는 더욱 조이고 스커트 폭은 더욱 넓혀서 그 이상형에 다른 신분보다는 가깝게 보이도록 노력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볼록한 배를 선호하던 이 시대 귀족들은 더 많은 패드 및 속옷을 이용하여 배를 크게 보이도록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서민들은 법적인 규제때문에 귀족만큼 형태 과장을 할 수도 없었거니와 기능적으로도 농사일을 도우며 집안일을 도맡아 해야 했을 하급 여성으로서 엎드리기도 힘들 정도로 배를 볼록하게 만들 수는 없었지 않았나 생각한다.

III. 결 론

이상으로 15~16세기 회화에 나타난 복부가 강조된

여성체형과 복식 그리고 시대적 배경과의 연관성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의 결과: 복부가 강조된 여성체형이 미술작품에 나타나기 바로 전세기인 14세기 유럽사회는 잦은 기근과 전쟁으로 거의 포화상태에 있었던 인구가 점차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결정적으로 14세기 말 유럽을 휩쓴 흑사병으로 인하여 지역에 따라 20~50%의 인구감소가 있었다. 그 결과 농업과 수공업 중심의 경제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자본인 인간 즉 노동력이 역사상 유례없이 부족했다. 가능한 한 많은 자식의 생산이 당시의 가장 큰 경제적 요구였으며 그것은 생식능력이 있는 모든 남녀의 가장 고귀한 도덕적 의무였던 것이다.

연구문제 2의 결과: 연구문제 1의 결과에서 밝혀진 사회적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자본인 자식을 잉태한 여성의 모습은 그 당시 모든 여성이 도달하고 싶었던 그 시대 최고의 이상형이었음이 분명하며 화가들은 그 시대가 원하는 여성의 모습을 그들의 작품속에서 표현했던 것이다. 따라서 누드작품에 나타난 복부가 강조된 여성체형은 임신부 체형임이 밝혀졌다. 이들 중 임신부의 신체적 특징들 즉 가슴과 복부의 형태 변화와 임신선의 표시 등 임신중에 나타나는 신체변화를 해부학적으로 잘 묘사한 작품들과 인체 해부학적인 지식없이 피상적으로 복부만 강조한 작품들로 분류할 수 있었다.

연구문제 3의 결과: 임신부 체형에 도달하고 싶은 여성들의 욕망은 복식을 통해 실현될 수 있었다. 베게나 패드 혹은 상품화된 속옷등을 사용해서 복부를 강조하여 임신부처럼 가장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서 경제학이나 인구학 분야에서만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었던 인구변화가 새로운 사회적 이상체형을 성립시킨 요인이 되고 이로 인하여 복식의 형태를 변화시킨 연관성을 밝힌 것은 의의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 1) Susan. B. Kaiser,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MacMillan, 1985, p. 67.
- 2) 이성은, 인체의 양상에 관한 회화적 표현의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88, pp. 1-2.

- 3) 류기주, 김민자, 인체에 대한 미의식에 따른 복식형태-고대 이집트에서 낭만주의 시대까지-, 한국의류학회지, 제16권 4호, 1992, pp. 357-369.
- 4) Donna R. Danielson, The Changing Figure Ideal in Fashion Illustration,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Vol 8. No 1, 1989, pp. 35-48.
- 5) 류기주, 김민자, *op. cit.*, p. 362.
- 6) Kenneth Clark, 누드의 미술사, 이재호 역, 열화당, 1988, pp. 388-389.
- 7) Eduard Fuchs, 풍속의 역사 II ; 르네상스, 이기웅 박종만 역, 까치, 1988, p. 48.
- 8) Marilyn J. Horn, Lois M. Gurel, The Second Skin, Houghton Mifflin, 1981, p. 413.
- 9) Kenneth Clark, *op. cit.*, p. 11.
- 10) Wassily Kandinsky, 예술에 있어서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 권영필 역, 열화당, 1979, p. 42.
- 11) Donna R. Danielson, *op. cit.*, pp. 35-48.
- 12) 박옥련, 복식과 인간, 경성대학교 출판부, 1994, p. 138.
- 13) 이정옥, 최영옥, 최경순, 서양복식사, 형설출판사, 1987, p. 12.
- 14) 박은구, 이연규, 14세기 유럽사, 탐구당, 1987, pp. 17-18.
- 15) *Ibid.*, pp. 18-19.
- 16) *Ibid.*, pp. 19-21.
- 17) *Ibid.*, p. 21.
- 18) William McNeil, 전염병과 인류의 역사, 허정 역, 한울도서, 1992, p. 171.
- 19) *Ibid.*, p. 181.
- 20) *Ibid.*, p. 186.
- 21) 브라이언 타이어니, 시드니 페인트 서양중세사 ; 유럽의 형성과 발전, 이연규 역, 1986, p. 536.
- 22) *Ibid.*, p. 535.
- 23) 박은봉, 한권으로 보는 세계사 100장면, 가람, 1992, pp. 129-132.
- 24) William McNeil, *op. cit.*, pp. 189-191.
- 25) *Ibid.*, p. 197.
- 26) 타이어니, 페인트, *op. cit.*, p. 536.
- 27) 이윤동, 누드미술의 변천과 계보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사학위논문, 1985, p. 381.
- 28) Eduard Fuchs, 풍속의 역사 II, *op. cit.*, p. 3.
- 29) Kenneth Clark, *op. cit.*, p. 381.
- 30) *Ibid.*, p. 31.
- 31) *Ibid.*, p. 31-32.
- 32) *Ibid.*, p. 389-390.
- 33) 임신, 출산, 아기의 첫 365일, 주부생활사, 1988, p. 43-44.
- 34) Cunningham, McDonald, and Grant, Williams Obstetrics, Appleton & Lange, 1989, p. 136.
- 35) 임신, 출산, 아기의 첫 365일, *op. cit.*, p. 45-46.
- 36) Kenneth Clark, *op. cit.*, p. 389.
- 37) William McNeil, *op. cit.*, p. 195.
- 38) *Ibid.*, p. 192.
- 39) 박은구, 이연규, *op. cit.*, p. 253.
- 40) 권태환, 김두섭, 인구의 이해,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0, p. 86.
- 41) 박은구, 이연규, *op. cit.*, p. 170.
- 42) Jacques Le Goff, 서양 중세 문명, 유희수 역, 문학과학 지성사, 1992, pp. 340-343.
- 43) Eduard fuchs, 풍속의 역사 I ; 풍속과 사회, 이기웅, 박종만 역, 까치, 1988, p. 25-31.
- 44) Paul frischauer, 세계풍속사 上, 이윤기 역, 까치, 1991, p. 372.
- 45) Paul Frischauer, 세계풍속사 下, 이윤기 역, 까치, 1991, p. 44.
- 46) Eduard Fuchs, 풍속의 역사 II, *op. cit.*, pp. 23-25.
- 47) 패션의 역사 I, 라사라, 1992, p.152.
- 48) Blanche Payne, History of Costume, Harper & Row, 1965, p. 249.
- 49) Mary E. Roach, Joanne B. Eicher, The Visible Self: Perspectives on Dress, Prentice-Hall, 1973, p. 87, 96.
- 50) Susan B. Kaiser, *op. cit.*, p.67.
- 51) 패션의 역사 I, *op. cit.*, p. 152.
- 52) Eduard Fuchs, 풍속의 역사 II, *op. cit.*, pp. 50-51.
- 53) Eduard Fuichs, 풍속의 역사 I, *op. cit.*, p. 23.
- 54) 정홍숙, 복식문화사-서양복식사-, 교문사, 1987, p. 122.
- 55) 이정옥 외, *op. cit.*, pp.139-140.
- 56) *Ibid.*, p. 128.
- 57) 정홍숙, *op. cit.*, p. 118.
- 58) *Ibid.*, p. 120.
- 59) 이정옥 외, *op. cit.*, p. 129.
- 60) Jacques Le Goff, *op. cit.*, p. 427.